

순천시 문화콘텐츠 펀드 875억원 조성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조성 박차 전략펀드 운용사 12일까지 모집 “순천에서 세계적 기업 키워낼 것”

순천시가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의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875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3일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 공고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에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IP와 신기술 두 분야에 문화콘텐츠 전략 펀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875억원으로 정부 525억원, 시 50억원, 민간투자 300억원이다.

시는 총 4년간 50억원(IP 30, 신기술20)을 출자하고 시 출자금의 200%인 100억원 이상을 관내 소재(이전 예정 포함) 콘텐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회수 기간은 각각 4년으로 2032년까지 총 8년간 운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2일까지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운용사를 모집하며, 펀드를 내실있게 운용한 경험과 전략이 있고 특히 순천시 콘텐츠 산업에 투자 의지가 강한 운용사를 중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략 펀드 조성이 순천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세계적 기업을 키워내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많은 기업이 순천에 뿌리 내리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여수 섬박람회 성공 개최”...27개 읍·면·동 릴레이 홍보

다음달 10일까지...시민 참여 촉구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27개 읍·면·동 릴레이 홍보에 돌입했다. <사진>

조직위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7일 소라면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열린대화에 참석해 정안조 소라면 이장협의회장에게 섬박람회기를 전달하고, 소라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 릴레이 홍보는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리고, 이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조직위는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2025년 여수시 시민과의 열린 대화 일정에 맞춰 오는 내달 10일까지 릴레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여수시민의 절대적인 참여와 응원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릴레이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공개최의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여

수세계박람회장과 금오도, 개도 등 섬 지역 일원

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연중 고품격 공연 펼친다...공연예술 지원 공모 6개 선정

국비 3억4000만원...4월부터 무대

보성군이 2개의 정부 문화지원사업에 선정돼 고품격 공연을 연중 선보이게 된다.

보성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5건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년 공연예술 창작 주제 공모사업’ 1건이 선정돼 국비 3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은 문화 취약 지역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순수예술 장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연예술 창작 주제 공모사업’은 공연예술인들의 창작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연은 ▲4월 가곡의 별(문화예



진내 보성군이 공연예술 공모 사업에 선정돼 공연했던 작품의 포스터.

술기획 함박우슴) ▲6월 악단광칠 콘서트-매우 취라!(악단광칠) ▲7월 비밀의 노래(극단 산) ▲9월 스냅 SNAP(그루잠프로덕션) ▲10월 돈의 신(우리소리 바라지) ▲11월 자락: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하여(불세출)로 오는 4월부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수준 높은 공연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추가 공연 확보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기부답례품 후기 쓰고 커피쿠폰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리뷰 이벤트’ 곡성군 매달 100명에 교환권

“감사합니다. 배 맛은 시원하고 달달하네요. 맛있어서 벌써 가족이랑 몇 개 먹었어요. ㅎㅎ... 기부하고 좋은 답례품 받아서 정말 좋네요!”

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에 대한 후기를 쓴 기부자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연다.

‘후기 쓴 김에 커피까지’라는 주제의 이번 이벤트는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읍몰어 곡성에 기부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곡성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위기브 포함)을 통해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후

기를 작성하면 된다. 플랫폼에 올려진 후기는 자동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달 100명에게 5000원권 커피쿠폰이 지급된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된다.

지금까지 고향사랑e음이나 위기브 등 민간플랫폼에 기재된 기부자들의 후기는 한 해 동안 농산물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등 지역농가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곡성군은 인구소멸을 막고, 고령화된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등 민간플랫폼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의 지정기부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우리 군 답례품에 만족하는 분들에게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 경품도 받아 가는 알찬 혜택도 같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양 중마동패션가,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등 참여

광양 중마버스터미널 인근 패션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중마동패션가 골목형상점가(중마버스터미널 인근 상권)를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광양상공회의소·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광양경제활성화본부 및 관내 소상공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광양시 골목형상점가는 시티프라자골목형상점가(시티프라자 A·B동, 광장로 123, 125)와 중마중앙로 골목형상점가(축척 중마지점 인근, 중마중앙로 43 인근 상권)에 이어 총 3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광양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보다 문턱을 낮춰,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상인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지정 구역 내 점포들은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첫걸음-디지털), 시장경쟁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은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해중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소비심리 둔화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영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국도 18호선 4차로 확장, 예타 선정

구례군의 국도 18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구례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2026-2030)의 일괄 예타 대상 사업에 ‘국도 18호선 확장사업’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사업 구간은 구례군청부터 구례구까지 총 연장 4.6km로, 사업비 6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구간은 2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 등으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

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구례군청-구례구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성중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